

# 이거 꼭 수술 해야 되나요? 비수술적 한방치료로 탈구된 고관절이 원위치 되다

신 상 윤

대전 유성 클렛 양한방 동물병원 부원장  
ksin2000@naver.com



윤 등 수

대전 유성 클렛 양한방 동물병원 원장  
os5818@hanmail.net



Patella luxation과 더불어 많은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는 관절질환이 hip joint luxation이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한쪽 다리를 들고 다닌다든가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 피부손상이나 반대쪽 다리 관절염, 통증, 요추디스크와 같은 질병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경우 수술적인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노령(10세 이상)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보호자가 수술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 단순 진통처치에만 그쳐 더 깊은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필자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한방치료가 불가능하게 손상이 심한 경우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복합 등 다양한 골절 수술이외에도 FHNO, 무릎관절관련 수술 등 정형외과 수술을 적지 않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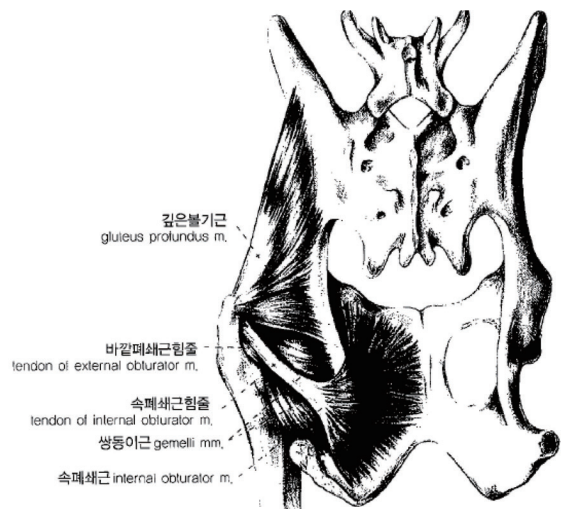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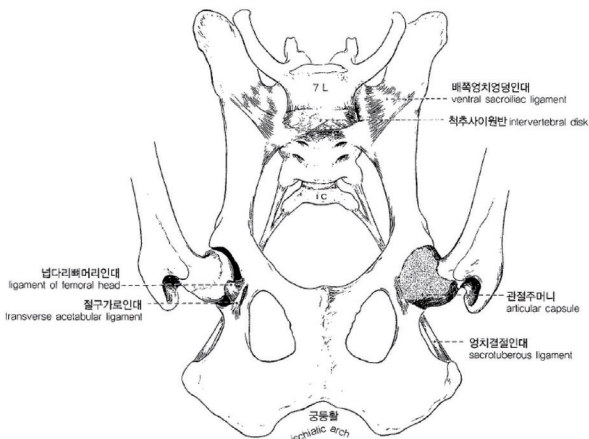
하지만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노령화되어가는 반려숫자가 늘어나면서 또는 인의에서처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요구는 날로 늘어가는 상황이다.

Femur와 Acetabulum이 이루는 hip joint의 굽힘각은 130~135도 정도이다.

Femur head에 오목한 부분은 Acetabulum 안쪽으로 대퇴머리인대(ligament of femoral head)가 연결되어 관절부위가 이탈되는 것을 막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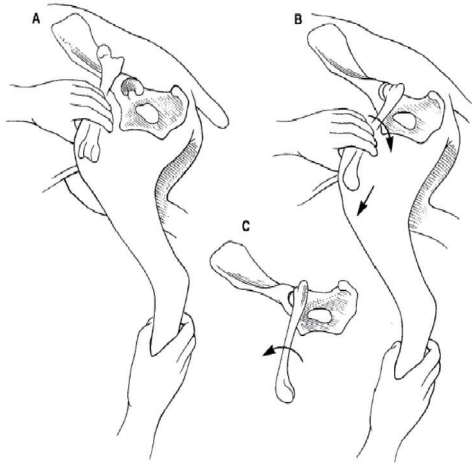
보통 탈구가 되면 굽힘각이 틀어지면서 연결되어 있는 강력한 인대 역시 손상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ligament of femoral head뿐만 아니라 엉덩이근육 중에 hip joint를 단단하게 해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internal obturator muscle, gemelli muscle, external obturator muscle, deep gluteal muscle 등이다. Trauma나 사고에 의해 또는 노령동물들이 근위축이 생기거나 근육의 힘을 잘 받지 못할 때 역시 탈구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물론 수술없이 물리적으로 탈구를 정복해 주는 방법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퇴머리인대(ligament of femoral head)나

주위근육에 손상, 관절의 마모가 심한 경우 재탈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수술적 방법이나 재탈구될 위험이 있다.

본 병원을 찾은 2013년 6월생의 포포(포메라이언)는 유기견 센터에서 관리를 받다가 현재의 보호자를 만나 같이 살게 되었고 처음 데려오는 시점부터 뒷다리 특히 오른쪽 뒷다리를 절었다고 했다.



다른 LH에서 검사 후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이외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싶어 내원한 케이스이다. 딱히 특이할 만한 history는 없고 혈액검사 상 큰 특이소견이 없었다.

내원 당시 이전보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듯 하다고 했고 다시 본병원에서 X-ray촬영을 했다.

오른쪽 탈구 뿐만 아니라 왼쪽 hip joint 역시 관절염이 진행 중이었고 양쪽 모두 만졌을 때 통증이 있었다.



타병원에서 아탈구로 진단

신체검사 상 허벅지와 둔부근육이 위축된 모습이었고 겁먹은 듯 소심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린 환자에서 이처럼 통증을 동반한 척추 또는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선천적인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좀 더 환자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보호자가 데려오기 전 유기견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history는 없었으나 외상이나 가지고 있던 질병이 없었고 식욕이나 배변 배뇨 역시 정상이었다고 한다. 본 병원에서 실시한 항체가 검사에서 역시 정상 이상의 항체가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아주 관리가 안된 편은 아닌 듯 했다.

혈액검사 상 큰이상은 없었다 했으나 근육이 많이 위축된 점, 기존 보호자와 떨어져 유기견 센터로 온 점으로 보아 관절이외에 간에 많은 병사가 침범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절치료와 간 그리고 신장을 보하는 양, 한방협진 처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모든 스트레스나 걱정과 같은 마음의 질병은 간에 병사를 일으킨다. 간은 주로 소설기능을 담당하여 기를 소통시키고 혈액과 진액의 운행을 조절하는 생리기능을 담당하는데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병사가 침범하게 되면 이러한 소설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어떤이유에서건 간에 병사가 왔다면 그것이 주관하는 근육과 힘줄, 인대 등에 영향이 미치고 마찬가지로 약해지며 그 주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선천지정을



아탈구된 부분이 탈구되어 빠지고 심한 통증 호소

담고 있는 신장 역시 같이 치료해야 할 타겟이 된다. 신장에서 주관하는 정기는 신체를 구성하고 생장, 발육과 모든 활동에 필요한 원동력이 된다. 만일 확인되지 않은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면 신장에 대한 치료를 꼭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특히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아이들이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확한 history taking을 통해 심장 기능 부전의 그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치료로는 침과 뜸을 신수혈(BL-23), 명문(GV-4), 요백회(GV-2-1), 간수(BL-18), 담수(BL-19), 환도(GB-30), 족삼리(ST-36)에 놓고 매 치료마다 Vit B, Vit C, Taurine IV 하여 항산화 처치를 병행하였다.

관절의 진통과 염증 완화를 위해 독활기생탕을 쓰면서 간과 신장, 비위기능 강화를 위해 인진호탕과 보중익기탕에 UDA, Silymarin을 합제하여 약을 처방하였다.

치료 2주만에 빠른 호전을 보였고 집에서도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보호자가 그러는 것으로 보아 후천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치료에 집중했다. 또한 보호자에게 집에서 수영과 마사지등 물리치료를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4주정도 지났을 때 완전히 정상 보행으로 돌아오고 뛰어다님에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아 X-ray를 찍어보기로 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구되었던 hip joint가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들어가 있었다.

대개 한방치료를 하다보면 영상학적 모습은 그대로이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함께 교정된 것이다.

이는 대퇴 머리 인대(ligament of femoral head) 힘의 증가와 대퇴근육, 둔부근육의 생환,그 주위 힘줄의 강화에 의한 교정이라 생각되고 X-ray 상 hip joint 주위 근육 증가 역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보호자의 요구와 치료에 대한 문의,선택은 점점 다양해지고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너무 어려서 또는 너무 나이 들어서 수술을 꺼리는 보호자를 많이 만나면서 그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해법이 양, 한방 협진을 통한 치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보이는 병변 이외의 병사를 찾아 같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다.

현재 환자는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지속적인 간, 신장 체크를 하면서 관리 받고 있는 중이다. ♡



이탈구된 부분이 탈구되어 빠지고 심한 통증 호소